



동학혁명군 전주무협입성 112주년

동학혁명기념관

개관11주년 기념식 및 동학사상 강연회

강연 ▶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천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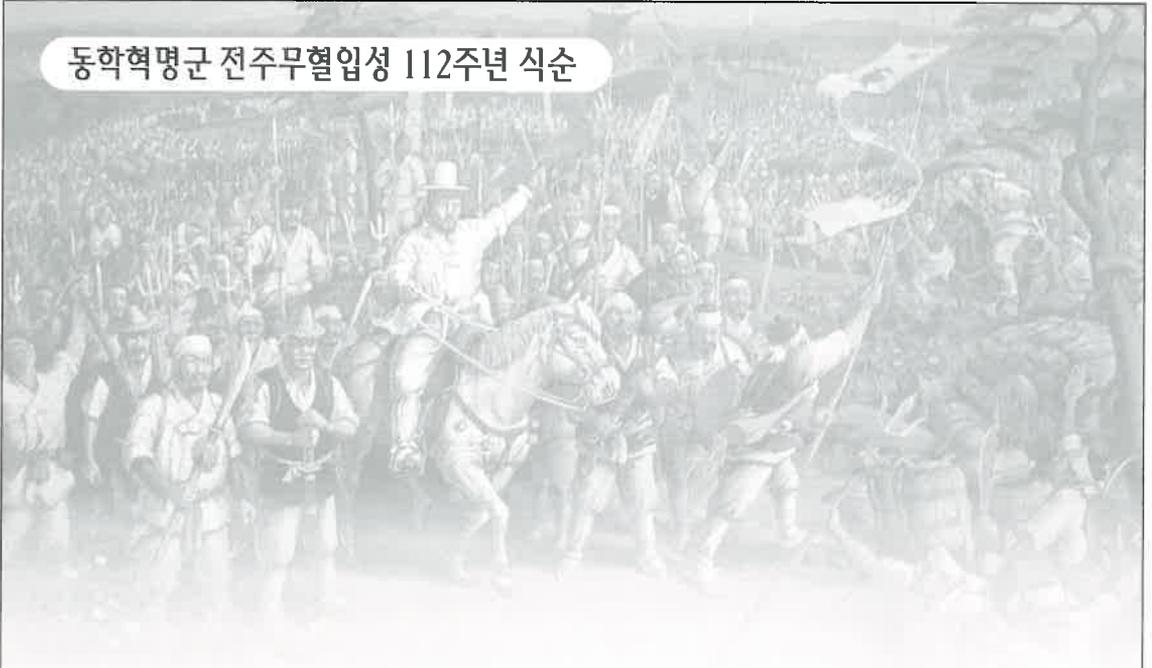




차례

식 순	3
축 사	
강 현 욱 (전라북도지사)	4
축 사	
한 광 도 (천도교 교령)	5
강 연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천도교 성주현(부천대학 겸임교수)	6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23

동학혁명군 전주무혈입성 112주년 식순



[동학사상 강연회]

- 강사 소개 및 취지 설명
- 강 연

제 목 :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천도교

강 사 : 성 주 현 (부천대학 겸임교수)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동학혁명기념관 표영삼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올해는 농민혁명군이 반외세, 반부패,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구국의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선지 112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효시가 된 동학혁명의 역사적 대의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11주년이 되는, 참으로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매듭을 짓게 되는 해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관련 강연회와 전적지 순례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학혁명기념관이 개관11주년을 맞이하기 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등 동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산교육의 장, 역할을 다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영광과 좌절이 교차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교훈삼아 희망과 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1세기 글로벌 문화경쟁 시대에 대응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세계적인 역사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중앙동 도청 자리에는 도민의 바람에 따라 전라감영을 복원하여 전북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되살려 나갈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의 민족적 성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해에 열리는 개관 11주년 기념행사가 동학혁명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표영삼 관장님과 성주현 교수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5.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천도교중앙총부가 전주에
동학혁명기념관을 준공하고 개관한지
어느덧 11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이를 경축하는 바입니다.



천도교 교령 한 광도

아시다시피 전주는 동학혁명 당시 호남의 수부요, 조선조 이씨왕족의 본향이며, 더구나 조선조를 건국한 이태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당시 부패무능한 봉건사회를 타파하기 위하여 기포한 동학혁명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정부측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폐정개혁을 위한 동학군의 집강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도교가 전주에 동학혁명기념관을 건립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학은 창건 이래 정부의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천주(侍天主)와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근간으로 양반과 상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이미 공주·삼례·광화문·보은 등지에서 대규모 신원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만큼 교세가 성장하여 민중적인 지지기반이 저변에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부패한 사회를 개혁 타파하기 위해 조직기반이 없는 민중을 이끌고 혁명의 선두에 나설 수 있는 조직은 동학교문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기포한 동학군이 황토현과 황룡춘전투에서 관군을 일거에 격퇴하고 전주성을 무혈점령하여 집강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유의 민정(民政)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무능 부패한 정부가 끌어들이 일본군의 신식무기로 인해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일 우리 정부는 스스로 끌어들이 외세로 말미암아 국권을 강탈당해야 했던 치욕적인 망국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록 동학혁명은 외형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백년간 지속되어온 우리 사회의 낡은 사회관습을 타파하고 민권을 신장시키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실패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정신이 후일 3·1운동의 근간이 되어 우리나라 건국이념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학군의 후예로서 깊이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전주의 동학혁명기념관이 선열들이 이룩한 동학혁명의 위대한 업적과 그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길이 전승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천도교

글 · 성주현 (부천대학 겸임 교수)

1. 고부기포와 동학

동학혁명은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혁명의 최초로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족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안 학계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이 지니고 있는 역사상 의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동학혁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계의 많은 연구업적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동학혁명이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 그리고 평가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동학혁명 100주년을 기해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듯 하였지만 오히려 논쟁만 더욱 재기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념 규정마저도 '동학란',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혁명, 동학혁명,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동학혁명운동,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운동, 동학민중운동 등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성격이나 평가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동학혁명의 개념이나 성격이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의 연구경향이 크게 두 개의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학혁명에서 동학사상 및 동학교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와 이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학계에서 거듭 논쟁을 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동학혁명의 주도층에 대한 분석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언급되었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당시 동학혁명 전개과정에서 참여하였던 참여자를 고부지역을 중심으로 동학혁명 이후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부지역을 선택한 것은 동학혁명의 1차 단계인 고부기포에 참여하였던 경우 동학교도가 적고 대부분 봉건적 탐학에 시달려온 '農民' 또는 '窶民' 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봉준·최경선·김도삼 등 고부기포를 주도자 이외의 참가자가 모두 조병갑의 학정을 참고 또 참다가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섬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민란을 일으킨 농민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부지역의 경우 전봉준을 포함한 사발통문에 서명하였던 참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부기포는 동학혁명 전단계로 인식함으로써 그동안 동학교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의 발굴과 해석으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고부기포에서 동학 및 동학조직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고부지역에 동학의 교세가 형성된 것은 대체로 1890년대 초로 추정된다. 호남지역에 동학이 포교되기 시작한 것은 1884년 해월 최시형이 익산 사자암에 머물면서부터이다. 이어 1897년 호남의 수부인 전주에도 포교가 되었으며, 이후 전부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김제, 임실, 정읍으로 동학이 포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부와 인접 지역인 정읍서 동학에 처음으로 포교된 것은 1889년이였다. 현재 확인 가능한 인물로는 정읍군 태인면 태흥리 양응삼(梁應三)과 태인면 궁사리 이홍화(李弘嬋)가 1889년 초에 각각 입교하였다. 이후 1892년 삼례교조신원운동, 1893년 보은과 원평의 척왜양창의운동, 1894년 1월 고부기포 때 호남지역에 동학이 크게 확산되었는데, 이때 고부에도 교세가 크게 발전하였다.

1893년 가을 고부에서는 만석보 수세 징수로 인해 민심이 적지 않게 흉흉해졌다. 전봉준·김도삼·정익서를 소두로 하여 40여 명이 이해 11월 고부관아로 몰려가 수세의 감면을 진정하자 군수 조병갑은 오히려 양민들을 선동하는 난민이라 하여 소두를 구금하였다. 이후 전봉준 등 동학교인을 중심으로 20명이 비밀리에 고부군 서면 신중리 송두호(宋斗浩)의 집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고부기포를 위한 사발통문을 만들기로 했다. 이때 작성되어 각里 執綱에게 돌린 사발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癸巳十一月日
各里里執綱座下

右와 如히 檄文을 四方에 飛傳하니 物論이 鼎沸하였다. 每日 亂亡을 謳歌하던 民衆 들은 處處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났어. 亂離가 났어” 에 “마침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나서야 百姓이 한 사람이나 어니 남아있겠나” 하며 期日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이 때에 道人들은 善後策을 討議決定하기 위하여 古阜 西部面 竹山里 宋斗浩家에 都所를 定하고 每日 雲集하여 次序를 決定하니 그 決議된 내용은 左와 如하다.

- 一. 古阜城을 擊破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 一. 軍器削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 一. 郡守에게 阿諛하여 人民을 侵魚한 貪吏를 擊懲할 事
- 一.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向할 事

右와 如히 決議가 되고 따라서 軍略에 能하고 庶事에 敏活한 指導者될 將(以下缺)

全球準 宋斗浩 鄭鍾赫 宋大和 金道三 宋柱玉 宋柱晟 黃洪模 崔興烈 李鳳根 黃贊五
金應七 李文炯 宋國燮 李成夏 孫如玉 崔景善 林魯鴻 宋寅浩

이 사발통문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점은 진위논쟁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발통문 문구 중에 ‘집강(執綱)’과 ‘도인(道人)’, 그리고 ‘도소(都所)’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서명에 참가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관계와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고부지역에서 동학혁명에 참여한 동학군은 현재 확인 가능한 참여자가 60여 명에 이른다.⁽¹⁾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대부분 희생되거나 고향을 등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부교구실기」에 의하면 고부기포와 동학혁명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갑오년에 북을 쳐서 천하게 동학이란 이름을 진동케 한 고부라. 그때 고부군수 조병갑의 포획이 자심하여 도인이 견디지 못하게 하므로 전봉준씨가 그 폐단을 막고자 하다가 필경 뜻과 같지 못하므로 도인 수만 명이 회집하여 호소하는 끝에 서로 상치하다가 필경 접전까지 되어 강약이 부당하므로 도인의 죽엄은 산과 들에 쌓이고 피흘려 내를 이룬지라. 이렇게 혹독한 서리와 추운 바람을 겪은 뒤에는 도 믿는 행적도 밖에 나타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록 조그만 혐의만 있더라도 동학군 접주라고 관청에 말하여 곧 잡아다가 죽이게 하니 이때에 다시 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오.⁽²⁾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군수의 학정은 동학교인들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를 전봉준이 대표로 시정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동학교인들은 혁명의 불길을 당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도인의 죽음이 산과 내를 이루었고, 살아남은 도인들은 풍찬노숙을 하고 동학군이라는 혐의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러 동학을 믿는 사람의 행적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발통문에 참여하였던 서명자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발통문에 서명하였던 20인 중 전봉준·송두호·김도삼·송주옥·황홍모·황찬오·김응칠·황채오·손여옥·최경선 등 10인은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갑오년 또는 이듬해에 희생되었다. 그리고 당시 살아남았던 인물은 황해도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대부분 변성명으로 고향을 등지고 유리걸식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교구실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 고부지역에서 동학혁명에 참여한 동학군은 다음과 같다.

전봉준 송두호 정종혁 송대화 김도삼 송주옥 송주성 황홍모 최흥렬 이봉근 황찬오 김응칠 이문형 송국섭 이상하 손여옥 최경선 임노홍 송인호 차치구 정덕원 정운집 전동팔 홍광균 김개남 김지풍 최영찬 김한술 정일서 김도삼 송경삼 주관일 주문상 윤상홍 임정학 김영하 김한술 김련구 양응삼 이흥화 강도희 황제원 황충원 손영석 유흥철 육근춘 김영두 이용준 서광옥 이영국 양하순 이장환 박춘봉 장경호 유학순 김경삼 박상운 강근익

(2) 송재섭, 「고부교구실기」, 『천도교회월보』 83호, 언문부 16-17면.

이 집터는 본시 송대화씨 집 자리라. 갑오년에 동학대접주의 지목으로 잡아죽이려고 하는고로 성명을 변하여 도주하고 그 부친 두호씨와 그 종형 주옥씨는 또한 동학 혐의로 잡혀 전라남도 나주군 옥중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고, 그 아우 주성과 기호씨는 황해도 송화군으로 귀양살이 가고 그 집은 경군이 다 불살라버리고 빈터만 있더니⁽³⁾

즉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던 집의 주인 송 대화는 고향을 등지고,⁽⁴⁾ 송두호와 송주옥은 죽음을 당하였고, 송주성과 송기호는 귀양을 갔다. 이처럼 고향을 등지거나 귀양을 갔던 동학혁명 참여자는 동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진정되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다고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던 때처럼 동학을 신앙할 수는 없었다.

1904년 동학교단이 흑의단발과 정부개혁을 기치로 진보회를 조직하고 개혁운동을 전개하자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던 송대화, 김련구, 강도희 등은 진보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어 1906년 동학교단은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근대적 종교로 중앙에 중앙총부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교구가 설립되었다. 동학혁명의 진원지인 정읍지역에는 1906년 고부교구, 정읍교구, 태인교구가 각각 설립되었다. 1860년 동학 창도 이후 끊임없이 관의 지목과 탄압으로 질곡에 있던 동학은 천도교로 근대적 종교로 탈바꿈하면서 신앙의 자유로 얻게 되었다. 이에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던 도인들은 교구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고부지역 도인들은 1917년 고부기포 당시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던 송 대화의 집터를 매입하여 교구실을 마련하였다.

몇 해 전에 그 동네 어떤 사람이 4,5칸 집을 화려하게 건축하였는데 가히 공청집으로 사무도 볼만 한지라. 그러나 그 집을 매득할 획책이 없어서 항상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집에 천도교 궁을기를 높이 달고 원통하던 마음이 상쾌하게 할꼬 하였더니 천사의 감화하심을 힘입어 과연 그 집에 천도교 교구실 문패를 부치고 궁을기를 높이 달아 시일마다 일반교인이 단회하여 시일예식을 거행 하니⁽⁵⁾

이때 사발통문에 작성에 참여하였던 송대화, 이성하, 이문형, 최흥렬, 송국섭 등이 각각 의연금을 기부하였다.⁽⁶⁾ 그리고 사발통문 서명에 참여하였던 교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고부교구실기」, 17-18면.

(4) 송 대화는 동학혁명 막바지에서 전봉준이 "너라도 살아남으라"는 당부를 받고 나주를 거쳐 배를 타고 전북 옥구군 임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슴생활로 10년을 보냈다.(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62-64면)

(5) 「고부교구실기」, 18면.

(6) [원고부교구], 『천도교회월보』 5호, 언문부 22-23면. 송 대화와 송재섭 35원, 이성하 10원, 송국섭 5원, 이문형 2원, 최흥렬 1원.

- 송국섭 : 교구장, 전제원, 공선원, 강도원
- 이성하 : 고부·흥덕·무장교구 감독, 공선원, 전교사
- 임노홍 : 공선원
- 송대화 : 강도원, 교구장
- 송주성 : 교구장
- 최흥렬 : 전교사

특히 송대화는 '환원기사'에서 “甲午變亂의 風餐露宿과 甲辰風霜의 千辛萬苦, 봉훈, 교훈, 강도원, 교구장, 봉황각 49일기도를 봉행하고 1919년 4월 환원”으로 그의 활동을 압축하고 있다. 그리고 강도회의 경우도 1894년 동학에 입교하여 동학혁명과 갑진개화운동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구실 건축에 1백원을 기부하고 봉훈, 전교사, 금융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894년 1월 사발통문을 작성뿐만 아니라 이후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던 20인 중 10인은 동학혁명 과정에서 희생을 하였고, 나머지 10인 중 정종혁을 제외한 9명은 동학교단과 그 맥을 같이하였고, 1905년 12월 근대적 종교인 천도교로 탈바꿈하고 고부교구를 설립하였을 때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부기포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동학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홍성의사총과 동학

홍성은 충청남도 중서부에 위치한 소도시이지만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근대사에 있어서 홍성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1894년의 동학혁명 당시 홍주성 전투이며, 둘째는 1896년의 을미의병, 셋째는 1906년의 丙午義兵 활동이다. 이들 중 항일의병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896년과 1906년에 걸쳐 전개된 두 차례의 의병활동은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1894년의 동학혁명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잘못된 역사적 오류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충청남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된 홍성의사총(洪城義士塚, 일명 구백의총)의 경우 올바른 사료의 검증과 판단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1906년 병오의병이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된 의병들의 유해로 판단하는 착오를 가져오고 있다.

홍성의사총은 1949년 4월 5일 박주철 홍성군수와 박헌교 홍성경찰서장이 직원들과 함께 현재의 의사총이 있는 대교리(大校里) 동록(東麓)에서 식수하다가 의외로 수많은 유골을 발견하면서 비롯되었

다. 유골이 발견되던 당시 한 노인으로부터 병오의병항쟁 때 전사한 유골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의사총이지만 당시 발견된 유골이 9백여 구가 된다고 하여 구백의총(九百義塚)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렇지만 1906년 병오의병항쟁에서 희생된 의병은 82명이며 145명이 피체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시 의병항쟁에 참가했던 유준근은 3백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동학혁명 당시의 홍주성 전투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없이 당시에 발견된 유골을 단순히 병오의병운동만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성의사총에 안장된 유골의 신원을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홍주를 중심으로 한 내포 지역(태안, 서산, 예산, 당진, 아산, 홍주 등 충청도 서북부 지역을 일컫음)의 동학 세력은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1893년 3월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을 계기로 점차 교인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듬해 1894년 전라도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다. 내포 지역의 동학 조직은 1894년 9월 동학혁명의 총기포령이 내려지자 서산과 태안에서 10월 1일 첫 기포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서산 여미(餘美)벌에 집결하였다. 이곳으로 집결한 충청도 내포지역의 동학군은 당진 승전곡(勝戰谷)과 예산 신례원(新禮院) 전투에서 승리한 후 홍주성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홍주성(洪州城) 전투는 10월 28일(음)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전개되었으나 수천 명의 희생자만을

(7) 이날 홍주성전투에 참가한 일본군 적송국봉(赤松國封) 소위는 당시의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洪州城 북쪽에 있는 鷹峰의 嶺山에 이르러 바라보니, 賊이 전방 4km 지점에서 행진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곧 洪州城에서 제2, 4분대를 동북문 사이에, 제3분대와 제3소대의 제1분대를 서문 앞에서 水庫 언덕에 걸쳐 배치했으며 제5분대를 북문 왼쪽에, 제3소대의 제2분대를 서남문 중앙으로 산개하고 水庫 언덕에 있는 우리 군의 퇴각을 엄호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제1분대를 응원부대로 하여 남문 뒤쪽 약 3백m를 두고 적의 내습을 기다렸다. 그리고 韓國 兵士를 8명씩 나누어 각 문의 日本 병사 사이에 섞어 배치했다. 오후 4시 적이 德山 가도 왼쪽 고지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오후 4시 25분 적의 한 부대가 水庫 언덕을 향해 전진해 왔다. 거리 약 4백m에 있는 벼 수확 끝낸 논(畝田)으로 접근해 오자 언덕 위에 있던 우리 군이 몇 번 일제 사격을 퍼부어 賊 수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적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자기편의 인원이 많은 것을 믿고 끝내 水庫 언덕에까지 전진해 왔다. 언덕 위에 있던 분대는 중과부적으로 퇴각하여 서문의 오른쪽과 왼쪽에 의지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적을 저격했다. 이와 동시에 제5분대는 德山 가도 서쪽 북문 앞 가까이에 있는 고지에 모여있는 적을 향해 세 번 일제 사격을 했다(거리 8백m). 적은 이 사격에 놀라 두 대열로 갈라져 도로 동쪽 고지 숲 속에 진을 쳤다. 이 때 洪州兵이 북문에 배치해 있던 대포 2발을 발사했다. 그 거리는 3백m였다. 적이 흩어져 북쪽 숲 속으로 들어가 갈라졌던 두 대열이 합쳐졌다. 이 때 또 제2분대가 일제 사격을 가해 적의 기세를 꺾었다. 적의 한 부대가 동문 전방 6백m에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가 서서히 전진해 왔다. 그리고 민가에 불을 지르고 연기와 불길의 솟아오르는 것을 이용하여 성 밖 100m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연달아 맹격해 오므로 응원대를 동문으로 증파하여 응전시켰다. 적은 밤이 되자 야음을 이용하여 대포를 동문 앞 40m 지점에 끌고 와, 동문을 마구 쏘았다.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하여 싸웠다. 오후 7시 30분 총소리가 거의 멈췄다. 우리 군과 洪州 민병은 성 벽에 의지해서 밤을 세워 경계했다. 26일 오전 6시 적은 세 방면에 엄호병을 남기고 약 1,500m 되는 곳에 있는 鷹峰 고지로 퇴각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오후 4시 30분 패잔병을 鷹峰으로 모아(水庫 언덕은 제외) 퇴각했다. 오후 5시 水庫 언덕의 적도 海美 방면으로 퇴각했다. 그래서 1개 부대(洪州兵)를 내보내 추격했다. 오후 6시 속속 부상자와 도망자를 잡아 왔다. 포로의 말에 따르면 총인원이 6만이라고 했다. 그 실체는 3만 남짓 될 것이다. 27일 새벽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속속 적의 도망자와 부상자를 잡아 왔고, 적이 海美로 퇴각했다고 보고를 해왔다. 28일 오후 12시 30분 적의 1개 부대가 葛山(洪州에서 12km 떨어진 곳)에 모여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추격하기 위해 下士 이하 45명을 이끌고 오후 1시 출발하여 오후 5시 葛山에 도달했다. 그 지방민의 말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海美로 퇴각했다고 한다. 진당 10명을 잡아 오후 9시 성으로 돌아왔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국사편찬위원회, 1986, 211-212면)

내고 홍주성을 점령하지 못했다.⁽⁷⁾

한편, 홍주성의 병오의병은 1906년 을사5조약이 체결되자 민종식(閔宗植)을 중심으로 3월 15일 대흥군(大興郡) 광수(光水) 장터에서 약 3백~6백여 명의 규모로 첫 기치를 올렸다. 이들은 홍주성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관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완강하여 오히려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 재기를 도모한 의병들은 5월 19일(양) 홍주의 삼신당리(三神堂里)에서 일본군을 공략하고 홍주성을 점령되었다. 의병들이 홍주성을 점령하자 인근 지역에서 지방 유생들이 적극적으로 의병에 가담하였으며 의병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홍주성에서 퇴각한 일본군은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남부수비대 보병 2중대, 기병 1소대와 전주 수비대 보병 1소대로 5월 31일 아침 홍주성을 다시 점령하였다.

그렇다면 홍주성 전투에 참여한 동학군과 의병의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었을까. 1894년 동학혁명 당시 홍주성 전투에 참가한 인원수를 살펴보면 최소 7천명, 최대 수만 명 또는 6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의병의 경우에는 최소 2백여 명에서 최대 5천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1894년 동학군의 홍주성 전투와 1906년 의병의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된 사망자 및 부상자, 그리고 포로의 수를 살펴보면, 동학군의 경우 기록에 따라 사망자가 최소 2백여 명, 600-700명, 수백여 명, 수천 명, 그리고 많게는 3만 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일본측의 기록은 2백여 명과 수천 명으로, 관변측 기록은 600-700명, 그리고 동학측의 기록은 수천 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동학군이 포로로 잡혀 처형되지 않은 수백여 명과 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의병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80-100여 명, 3백여 명, 그리고 많게는 1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일본측 기록은 82명, 홍주성 전투에 참가하였던 의병이 남긴 자서전에는 3백 또는 1백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보도된 『대한매일신보』만 유일하게 1천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대체적으로 1906년 병오의병이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를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하였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의 희생자 역시 마찬가지로 축소 조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측이 기록한 양측의 자료에서도 동학군은 사망자 2백여 명과 부상자 무수(無數), 의병은 82명으로 공사관에 보고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측의 기록이 축소 조작되었다면 이를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동학군은 적게 잡아도 1천여 명이며, 의병은 3백여 명이다.

그러나 단순히 희생자의 수만으로는 홍성의사총의 유골의 진위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투현장, 당시 조정이나 유생, 및 일반 민중의 시각, 그리고 사후 시신 수습과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894년 홍주성 점령을 목표로 한 동학군은 덕산가도를 따라 적현(赤峴)에 이르러 한 부대는 서문(西門)으로, 다른 한 부대는 대교리 간동(諫洞)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서문과 간동의 중간인 북문 앞에

도 한 부대가 주둔하였다. 서문에 진을 친 동학군은 서문과 북문을 향하여 집중 공격하였으며, 간동에 진을 친 동학군은 동문을 향해 공격하였다. 간동에 주둔한 동학군이 동문(東門)을 공격하려면 현재의 홍성의사총이 있는 대교리 동록을 가로 질러야 한다. 즉 유골이 발견된 동록은 동학군의 진격로이며 전투현장이며 퇴각로인 곳이다. 특히 동문을 공격한 동학군을 박덕칠(朴德七)이 지휘하였는데 만 여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동문 40 미터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나 수많은 희생자만 내고 퇴각하였다. 동학군으로서는 최정예부대가 이곳에서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홍주성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홍주성 공격에 실패한 동학군은 다시 간동에서 잔여세력을 정비한 후 해미(海美)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결국 홍주성 전투에 참가한 동학군은 홍주성의 북문과 동문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은 홍성천 주변에 그냥 내버려졌던 것이다.

한편 1906년 당시의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현장은 홍주성 안이었다.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공격을 하였으나, 의병은 일본군과 전투에서 성 안에서 방어를 하는데 주력하였다. 더욱이 일본군이 홍주성에 진입, 시가전이 전개되자 의병대장 민종식(閔宗植)은 그의 막료 및 많은 의병들과 함께 홍주성을 빠져나갔다.

다음으로 1894년 동학혁명 당시의 정부와 유생, 그리고 일본군의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과 1906년 의병항쟁 당시 정부와 유생, 그리고 일본군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나 유생들은 동학군과 의병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일본군과 연합하여 적극적인 토벌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의병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거병 명분을 유교의 이념에 두고 있음에 근거하여 소극적 진압이라든가 또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군은 동학군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동학군이 1894년 9월 반외세의 기치로 재봉기 후 정부에서 대대적인 동학군 토벌을 전개하자 각 지역의 보수지배층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호응하였으며 정부 또한 동학군 토벌을 위한 민보군의 조직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지배층 즉 양반사족층, 향리층, 수령층 등으로 구성된 민보군이 9월 이후 전면적으로 조직되어 동학군을 토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홍주의 민보군은 홍주목사 이승우를 도와 동학군의 홍주성 공격을 막았으며, 이후 동학군 색출에도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홍주성 전투 후 민보군은 일본군과 함께 보령(保寧)을 비롯하여 홍산(鴻山), 해미(海美), 덕산(德山) 등지의 동학군을 색출하여 홍주성으로 압송하였다. 일본군은 홍주성에 동학군 수백 명이 사로잡혀 있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이들을 처형할 것을 시달하였으며, 이승우 홍주목사는 홍주성 북문 밖 월계천(月溪川) 변에서 동학군을 효수하였다. 동학군의 처형장이었던 월계천은 홍성의사총 앞을 흐르고 있다. 당시 희생된 동학군은 대부분 서산을 비롯하여 태안, 당진, 아산, 덕산 등지에서 참여한 관계로 홍주와는 연고가 없어 그들의 시신은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학군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상황으로는 동학군으로 몰

리어 참형을 당하였다. 이에 비해 1906년 당시 홍주의병은 1894년 동학혁명과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이면 의병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동학혁명과는 사뭇 달리하였다. 관군이나 유생들은 홍주 의병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정부에서 파견한 진압군 역시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이병의 시신은 당시 선유사(宣諭使)로 파견된 윤시영에 의해 성 밖으로 옮겨져 한 곳에 매장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윤시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윤4월 17일 일찍 民夫를 내어 죽은 사람을 옮겨 묻으니 어제 찾아 묻은 자와 합하여 83명이다, 당 일에도 목 잘린 자를 15명을 찾았는데 흑시 結成 瑞山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때 매장된 의병들은 홍주 지역의 의병보다는 결성이나 서산 등의 지역에서 참가한 의병으로 보인다. 윤시영은 의병의 매장에 앞서 윤4월 14일(양 6월 5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방(榜)을 붙여 “이번 성 함락 때 죽은 사람을 오는 17일 다른 곳으로 옮겨 묻고자 하니 시친자(屍親者)가 있으면 그날 이른 아침에 성 아래에 기다렸다가 시체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유림의 주도로 전개된 홍주 의병은 사후 선유사로 파견된 윤시영 홍성군수의 선처에 의해 홍주 지역의 연고자가 있는 대부분의 시신은 찾아갔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연고자가 없어 찾아가지 못한 시신 83구만 성 밖 어느 한 곳에 매장된 것이다.

이상으로 홍주성에서 전개되었던 1894년 동학군과 1905년 의병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홍주성 전투에 참가한 인원수의 경우, 동학군은 최대 6만 명에서 최소 7천명이었으며, 의병은 최대 5천명에서 최소 2백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참가 인원수에서도 동학군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다. 둘째,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당한 인원수의 경우, 동학군은 최소 2백 명이며(홍주성에 압송되어 효수당한 동학군 제외) 최대 수천 명 내지 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병은 최소 82명이며 최대 1천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대 1천명의 기록 역시 정확한 것보다는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셋째, 전투현장으로, 동학군의 전투현장은 서문과 동문, 그리고 북문을 중심으로 홍주성을 공략하였으며, 의병은 홍주성 안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방어적인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는 유골이 발견된 지점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체포된 동학군은 유골이 발견된 북문과 간동에서 처형을 당하였으며, 그리고 동문 앞을 흐르는 홍성천에서 가장 큰 희생자를 내었다. 넷째, 정부나 유림의 인식으로, 동학군은 정부와 유림이 중심이 된 민보군, 일본군의 토벌 대상이었으며 의병의 경우 정부는 소극적 내지 방관적, 유림은 적극적 참여, 일본군은 적극적 탄압으로 분산되고 있다. 특히 홍주 지역에서 활동한 유림 중심의 민보군은 최후까지 동학군을 토벌하였다. 이들은 바로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 토벌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포로의 처리방안에서는 동학군은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즉시 처형되었으며 그 처형장이 바로 홍주의사총 앞을 흐르는 월계천과 간동이었다. 그러나 의병은 대부분이

석방되었다. 특히 홍주 의병대장 민중식도 체포되었으나 당시 조정에 의해서 결국 석방되었다. 끝으로 시신의 수습과정으로, 이는 유골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당시 유림의 활동이 왕성하였던 홍주에서 동학군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홍주성 전투 후 민보군과 일본군이 동학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동학군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그리고 동학군은 대부분 해미와 한산 방면으로 집결되어 있어 홍성천에 버려진 동학군의 시신은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병의 경우는 홍주성 전투 후 선유사로 파견된 윤시영 홍주군수에 의해 대부분 연고자가 찾아갔으며 시친자(屍親者)가 없는 83명만이 매장되었다.

이상으로 보아 홍성의사충에 묻혀있는 유해는 1906년 의병이기보다는 1894년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당한 동학군의 유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3. 1920년대 민족운동과 천도교

3·1운동 결과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우리 민족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법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크게 세 가지의 조류가 형성되었는데, 첫째는 무장투쟁론, 둘째는 외교론, 셋째는 신문화운동론이었다. 당시 천도교 내부에서는 독립운동에 관여치 않고 교단의 유지발전을 주장하는 방법론과 손병희의 뒤를 이어 적극적 활동을 주장하는 방법론으로 나뉘어졌다. 즉 하나는 신문화운동론이고 다른 하나는 무장투쟁론이었다. 이러한 운동론은 국외에서는 무장투쟁으로, 국내에서는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문화운동으로 각각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신문화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던 천도교청년당의 설립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천도교는 1906년 근대적 종교로 탈바꿈하면서 교리의 체계화를 이루는 한편 사회적 현실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갔다. 즉 ‘현대종교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總大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 하여 개인의 수양뿐만 아니라 사회도 구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점 이후 집중되었던 개인적 수양에서 점차 벗어나 1917, 18년 무렵부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을 문명론의 위기로 진단하고 세계개조의 시대흐름에 따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천도교의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는 방략으로써 그동안의 ‘교정분리’의 방침⁽⁸⁾에서 사회참여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개하였

(8) 천도교의 ‘교정분리’의 방침은 1904,5년 전개하였던 진보회운동이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내세운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일제의 강점 이후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17,18년 ‘교정쌍전’의 방침에 따라 사회현실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1919년 3·1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론이 되었다.

던 3·1운동의 결과 주요 지도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투옥되면서 천도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3·1운동 직후인 4월 “세계의 사조가 점차 인내천주의에 근접하고 사인여천주의에 밀접하고 있음으로, 천도교인이 나서서 정의인도, 평등자유를 실행하는 방법을 개조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사회참여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천도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략을 마련해야만 했고, 그 방략 가운데 하나가 청년단체의 결성을 통한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천도교청년들은 ‘운동적 색채’를 지닌 청년단체로서 교리강연부를 창립하였다.

천도교에서 교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교리강연부를 조직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대내적 요인인 ‘필연성’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적 요인인 ‘시대성’이었다.

먼저 필연성에 대해서 청년당의 창립 멤버였던 박태홍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다시 나방이 되는 것”처럼 종교도 성정 발전의 순환과정으로 보았다. 이 순환과정을 통해 청년단체 설립의 필연성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순화과정을 거쳐 ‘성신쌍전’, ‘인내천주의’⁽⁹⁾를 토대로 한 천도교가 종교 통일외의 주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천도교가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종교의 통일은 천도교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리강연부를 창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조와 당시 식민지 조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움직임을 천도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즉 식민지 상황에서 천도교청년들은 사회개조는 정신개조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결국 필연성은 종교발흥시대, 종교경쟁시대, 종교우열시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가 최후의 종교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천도교인들이 자각과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도교청년들은 천도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선전할 단체가 필연적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대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사조의 흐름이었다. 먼저 일제는 3·1운동 이후 長谷川好道 총독의 후임으로 齋藤實로 교체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강압적 통치방법인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변화를 꾀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언론 집회 및 출판의 자유’가 제한적이거나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저항주의적 민족운동노선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자들은 교육·산업·문화의 향상을 수단으로 하는 실력배양에 주력하게 되었다. 일제의 문화정치 표방 이후 1922년 9월까지 정치단체를 제외한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된 기회에 전국 각지에서 6천여 개의 각종 단체가 일제히 조직되어 일제 당국도 놀랄 정도였다. 따라서 당시 실력배양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자들은 일제

(9) 인내천주의는 천도교청년단체 운동론의 핵심이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돈화, 『인내천주의』, 개벽사출판부, 1925을 참조할 것. 한편 이 시기 김홍선, 박달성 등은 인내천주의를 ‘我本主義’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김홍선, [我的地位], 『천도교회월보』 115, 1920.3; 근파생, [고향에 계신 여러분 교우에게], 『천도교회월보』 53면)

가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문화운동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사조의 흐름이었다. 천도교청년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전개되는 시대를 '세계의 신사조가 일층 팽창하여 시대적 산물을 요구' 하는 사회로 인식하였다. 당시 세계의 흐름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남에 따라 침략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또한 약소민족의 독립과 격렬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면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비판하는 세계개조를 표방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전 후의 세계질서를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재편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청년들은 세계개조의 흐름을 '새바람', '찬란한 광의 세계', '신선한 자유의 인류'로, 나아가 '개벽'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개조의 흐름을 종교와 관련하여 인식하기도 하였는데, "신종교 신신앙이 아니면 금일같이 문명한 세계를 지배하기는 難하다"고 인식하고, 내적으로는 도덕적 심령의 수련과 외적으로는 진리적 지식의 확충에 노력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필연적, 시대적 배경 하에서 천도교 역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어느 단체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1919년 9월 2일 천도교 청년교리강연부를 설립하였다.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는 창립 8개월여 만에 1921년 4월 25일 간부회를 열고 명칭을 천도교청년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時宜에 依하여' 또는 '좀더 구체적 적극적 운동에 나아가게 되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교리강연부가 창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더욱이 지방조직까지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에 따라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적 운동으로 나아가게'된 배경은 무엇일까. 하나는 외적 배경으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흐름, 즉 '연합운동론'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내적 배경으로 '적극운동론'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청년단체의 조직은 이른바 일제의 문화정치로 확보된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농민과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1920년대 전반기 조선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렇지만 초기 청년단체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고립 또는 분산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1운동 이후 국내에 유입된 사회주의는 청년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즉 사회주의의 수용으로 청년운동은 점차 문화운동에서 분리하여 사회주의 청년운동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이들 사회주의 청년운동은 초기 청년회 자체의 독자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점차 지역과 지역, 크게는 전국적인 연합체 형식의 활동의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청년운동의 구체적 적극적 활동을 위해 '연합운동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청년운동계는 노동계였다. 노동계는 1919년 7월 3일 서울 태서관에서 조선노동문제연구회를 창립하는 한편 합법적 노동단체로 1920년 4월 11일 조선노동공제회를 창립하였다. 노동공제회의 결성은 1920년 초반 들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청년단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결과 조선청년회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은 다름이

아니라 지역적이고 분산적인 청년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통일적 지도기관의 필요성이었다. 이에 따라 1920년 6월 28일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를 발기하고 연합의 방침을 마련하였고, 12월 1일 발기총회, 그리고 다음날 2일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조선청년회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로써 청년연합회는 당시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노동공제회와 함께 단순한 청년단체로서가 아니라 이 시기 국내 전국적인 민족운동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노동공제회는 천도교청년회보다 20여 일 먼저 전국적인 연합체 운동단체로서 발족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교리강연부가 천도교청년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내적인 요소인 '적극운동론'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는 앞서 살펴본 각 단체의 연합운동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운동 및 청년운동을 지도할 연합체의 발족 또는 분위기, 그리고 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새로운 운동방향 등의 '時宜性'은 당시의 노동운동 및 청년운동의 구체성, 적극성으로 볼 때 교리강연부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교리강연부 내부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응할만한 실력도 풍부하며 他에 낙후되지 아니하고 필승의 영광을 戴할만한 활동력을 持"하고 "自家의 주의가 아무리 신성한들 선전치 아니함에 世가 자칭하여 시인할 리 만무할 것이며 自家의 목적이 아무리 원대한들 진취하지 아니하면 무슨 성공이 있는가" 자성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문화운동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비록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배와 문화운동이라는 주변적 상황이지만, 조선에서 사회를 이끌어갈 실력을 양성하는 것과 천도교 이념의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즉 '천도교를 사회화 내지 민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우리는 인내천의 주의로써 4천년의 적막을 破하였으며 우리는 인내천의 진리를 선전하여 此世의 영원한 장래를 圖하는 것" 또는 "조선인으로써 조선 유사 이래의 독창적인 인내천 중지 아니 인류진화의 최고도인 인내천 중지를 善解치 못한다면 이야말로 조선인의 조선인이 아니다"하여 천도교의 이념인 '인내천'을 '主義'로 표방하고 있다. 즉 '인내천주의'를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종교보다는 이데올로기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후 인내천주의는 청년단체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인내천주의가 이데올로기화는 하는 데는 당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주의와도 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회주의의 국내 유입으로 천도교의 사회화 및 문화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첩적 성격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천도교와 사회주의간의 중첩적 성격은 이념, 대상, 조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천도교와 사회주의간의 운동 또는 활동대상은 당시 민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층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표면적으로 상충되는 부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단의 주요 핵심인사들 중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천도교와 동일한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리강연부는 그 대안으로 조직의 개편과 아울러 신문화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적극운동론은 교리강연부가 청년회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개편된 청년회는 기존의 부서를 포덕부, 편집부, 지육부, 음악부, 체육부, 실업부 등 6개 부서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도교소년회 조직, 전국 순회강연 실시, 「개벽」 발간, 축구부 및 야구부 조직, 무궁사 설립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방지회 역시 120여 개로 확대 조직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도교청년단체의 효시인 교리강연부로 1919년 9월 2일 창립하였으나 지방조직을 채 갖추기도 전인 이듬해 1920년 4월 천도교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당시 청년단체의 연합과 사회주의 보급에 대한 위기감 내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청년회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회는 “안으로는 信仰의 精篤과 단결의 공고, 밖으로는 사상의 고취와 문화의 진전을 도모”한 결과 5년 후인 1923년 2백여 지회, 8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청년회는 5년동안 괄목할만한 정도로 가시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내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나는 保革의 교단 분규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한 조직운영상의 한계였다.

천도교의 분규는 3·1운동 이후 사회주의의 보급과 손병희를 비롯하여 교단의 주요지도자들이 투옥되면서 내재되어 있었다. 3·1운동 이후 국내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서울청년회를 비롯하여 사상단체가 결성되면서 기존의 문화운동이 사회주의로 무장한 좌파진영의 도전을 받기 시작하자 천도교 내에서도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거나 동조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지영·윤익선·이상우 등과 김봉국·조인성·이동구·이동락·송헌·강인택·김교경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청년들은 1920년 말부터 ‘시대의 요구와 정의의 공론’이라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연원제 폐지 등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보혁갈등으로 혁신세력은 결국 천도교연합회로 교문을 별립하였고, 여기에 추종하는 청년들은 ‘천도교청년유신회’를 별도로 조직, 천도교청년회에서 이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회는 중앙과 지회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청년회는 ‘자각자중’을 요구하며 청년들의 본분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위기적 상황을 맞은 청년회는 부분적으로 개편을 하였으나 기대하였던만큼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청년회는 종래의 체제와 목적을 초월하는 새주의, 새강령, 새약속, 새실행조건으로써의 새로운 조직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은 1923년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청년회는 당시 조선의 사상계는 ‘민족주의’와 ‘인류주의(사회주의)’로 양립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범인간적민족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인간적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이는 “첫째 세계를 국가단위로부터 민족단위에 進케 하는 것, 둘째 각 민족이 상호 도덕적 원조 하에서 각자 성장을 濼하는 것, 셋째 현대의 가장 최선한 문화를 표준점으로 하고 세계 각 민족의 정도를 그 표준의 수평선상으로 인상케 하나는 것”이다. 이를 조선 민족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사상으로 此주의를 把持하고 나아가간다면 우리는 세계 각 민족의 一分子로 他的 諸諸의 민족과 선의의 도덕으로 악수하여 민족 공동의 행복을 圖하기로 목적할 것이요, 一面으로는 민족적 단결력을 공고히 하여 타민족의 무리한 침해를 정의의 수단으로 防遶 할 것이요, 又 一面으로는 민족적 창조 충동의 力에 의하여 자기의 정도를 자진하여 세계 최선의 문화에 적합케 하도록 노력할 것이요. 따라서 그 기풍을 우리로부터 선양하여 他的 열등의 민족으로 인류공통의 문화에 참여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¹⁰⁾

즉, 당시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인간적민족주의는 ‘조선민족의 사상으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민족의 사상은 바로 천도교의 ‘인내천주의’를 일컫고 있다. 나아가 당시의 조선민족의 정치적 내지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중심단체’의 결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적 중심단체’의 결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의 기초적 요건으로 ‘道德’을 본질적 기준으로 한 일곱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체가 조직되려면, 2인 이상의 몇 개인은 大同의 구제를 위하여 헌신적 노력하리라는 社會奉仕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

둘째, 단체를 조직하려면 대수한 개인의 주의와 정신과 계획과 감정이 일치하여야 할 것.

셋째, 대단결을 형성하여 대세력을 發하고 용두사미의 嫌이 없이 소기의 대사업을 成하려면 단결을 조성하는 각원에게 한 번 許하고 한 번 約하면 至死不變하는 信義의 덕이 있어야 할 것.

넷째, 대단결을 조직하여 대사업을 성취하려면 (중략) 그 단체의 각員에게 백절불굴의 도덕적 勇氣가 있어야 할 것.

다섯째, 곤란한 대사업을 감당할만한 견고하고 一心하는 대단결을 조직하려면 각원은 개인이 상호 간에 사랑하고 믿고 아끼고 용서하고 내세워주는 情誼와 자기의 속한 단체를 자신과 같이 애호하는 愛團心이 있어야 할 것.

여섯째, 다수의 개인이 공동한 主義하에 단결하여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각원에게 법을 존중히 하는 公民의 고급의식이 있어야 할 것. 즉 자기를 희생할지언정 결코 법(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정신과 단체의 결의에 대하여는 절대로 복종해야 할 것.

일곱째, 단체가 유력하려면 단원 중에 우수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다수 하여야 하고 또 그 전문가들이 단체의 부름이면 唯而不許하고 私事와 私情을 제쳐놓고 썩씩 나서야 할 것⁽¹¹⁾

(10) [汎人間的民族主義], 『개벽』 31, 1923.1, 10면.

(11) [汎人間的民族主義], 『개벽』 31, 1923.1, 29-31면.

즉 사회봉사, 신뢰, 신의, 용기, 애단심, 준법, 헌신 등 일곱 가지의 덕목을 갖추어야 사회주의든 종교주의든, 어떠한 형식의 단체이든지 '민족적 중심단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당의 기본성격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청년당은 조직의 결속을 위해 당원은 당의 일체의 결의에 절대 복종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鴻毛와 같이 경히 여기더라도 당의 약속은 태산과 같이 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직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은 인식은 신간회 창립 시기 제기되었던 이정섭의 '민족단일당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民族의 多部分의 사람을 網羅하여 名實 두 方面으로 完全한 意味의 民族單一黨을 建設하려면 그 構成分子는 무엇보다도 責任感이 튼튼해야 할 것이다. 責任感이 튼튼해야 物質的 또는 精神的의 犧牲도 있고 規律과 統制가 서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犧牲과 統制는 頭數와 人物과 指導理論과 合하여 團體結合의 五大要素를 이루고 있다.⁽¹³⁾

이정섭의 민족단일당론은 희생, 통제, 조직, 인물, 지도이념 등 5대 요소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민족중심세력이 될 수 있는 일곱 가지의 도덕적 요건과 민족단결의 동일선상에서 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중심단체의 결성은 민족적 중심세력에 의해 성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1922년부터 천도교청년회 내부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었다. 즉 "다수인 그것도 규모 있는 단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하등의 조직 있는 세력이 되지 못할지며, 규모있는 단결을 얻고자 하면 그것을 짓기에 족한 자각과 시련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여 민족단결론을 주장하였고, 이는 나아가 '절대의 약속을 가지고 새로이 來會하는 主義的 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적 중심세력'이 될만한 단체를 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천도교단측에서 왜 이 시기에 '民族中心勢力論'을 제기하였을까? 이는 당시 사회주의 청년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운동단체는 청년운동연합론에 따라 전조선청년회연합회가 결성되었지만, 연합회 내에서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과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인해 일부 사회주의계열 청년단체들이 연합회에서 탈퇴를 하는 한편 이들은 새로운 청년운동단체로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결성하였다. 청년당대회는 교육문제를 비롯하여 경제문제, 민족문제, 종교문제, 여성문제, 노동문제, 기타 사회문제 등을 논의하고 물산장려운동을 개량주의 노선으로 규정하는 한편 무산대중 계급의식의 고양과 공산주의 선동이라는 관점에서 종교를 절대 부인한다는 종교

(12) 金秉濬, [天道教青年黨의 出現], 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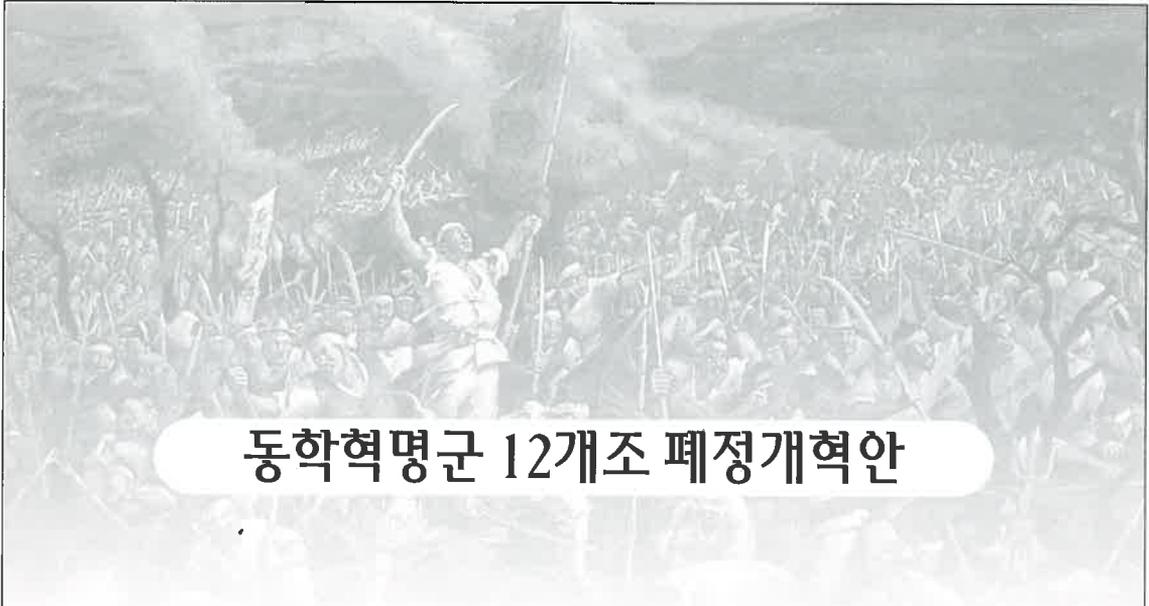
(13) 이정섭, [民族單一黨論], 『농민』 제2권 제6호, 1931, 6, 10-17면.

부정론을 결의하였다. 이들이 종교를 부정하는 이유는 ‘종교는 허무에서 발생’, ‘미신과 신앙으로 권위화’, 또는 ‘과학의 진리와 배치된다’는 무신론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청년당대회에서 종교부정론은 결의한 것은 사회주의세력이 민족주의세력 내에 주요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세력을 배척하기 위한 논리와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로써 청년당대회를 계기로 당시 청년운동의 방향을 공산주의 청년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에서는 사회주의에 대응하고 독자적인 민족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민족중심세력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교단의 혁신운동을 주도하였던 천도교 연합회와의 분규로 인해 교단의 조직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던 교단은 사회주의의 보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의 교단 내 침투에 대한 대처와 ‘社會的 公共事業’ 즉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天道教萬化會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처럼 교단적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자 청년회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천도교연합회의 혁신운동과 천도교유신청년회로 인해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회는 그 새로운 대안으로 청년세력 결집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는 ‘민족적 중심세력론’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청년회가 제기하고 있는 ‘민족적 중심세력론’은 ‘민족적 의식’으로 민족적 이상, 민족적 의지, 민족적 각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족적 중심세력은 정치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그 민족에게 가장 합당한 다시 말하면 가장 그 민족의 마음에 드는 이상을 이상으로 하고, 그 이상을 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굳게 단결된 단체’가 바로 민족적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민족적 중심단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명확한 신념과 완전한 계획, 그리고 실행’, 즉 ‘主義의 일치, 一心, 規則의 嚴守’로 이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족의 이익을 지키고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당의 성격을 지닌, 그리고 ‘主義’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대단체를 이루어 민족적 중심세력이 될 수 있는 세력에게 조선민족의 대표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이는 당시 3백만 교인을 이끌고 있는 천도교가 그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중국 상해에 활동하고 있던 천도교인에게서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천도교청년회의 역할이 마감되고 새로운 민족운동의 중심조직으로 1923년 9월 2일 천도교청년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적 중심세력론으로 제시하였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청년당의 주의, 강령, 조직, 당운동의 대강 등에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운동을 위해 농민·노동·청년·학생·여성·유소년·상민 등 7개 ‘部門運動’과 이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奎的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천도교청년당의 창당은 청년들의 내적 역량 강화와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동학혁명기념관 전경]

동학혁명기념관

- 기념관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76-2(풍남동 은행나무)
- 전화번호 : 063-231-3219(팩스 겸용)
- 기념관 사용소개
 - ① 각 사회단체 및 학교 등 2층 상설전시실 무료 개방
 - ② 각 사회단체 및 학술단체 등 1층 강당 유료 대여
 - ③ 동학·천도교에 대한 전화문의 및 방문 상담